



# H

# 03

현대중공업그룹 웹진 매거진 H  
NO.036

# INSIDE

<b>Feature</b>	‘씩수 있는 기업’의 기준은 ‘드림(Dream)’!	<b>03</b>
<b>People</b>	공간을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다 - 현대오일뱅크 미래발전TF팀	<b>07</b>
<b>News</b>	그룹사 주요 소식	<b>10</b>
<b>Special</b>	현대중공업의 시작과 창업자 정주영	<b>13</b>
	창업자 특집 - 제 3화   이웃과 민족을 사랑한 인본주의자	<b>17</b>
	창업자 기고문 전재 - 모두 승자가 될 수는 없다	<b>21</b>

# STORY

<b>Trend</b>	당신은 초대 받았나요? 인싸들의 앱, ‘클럽하우스’	<b>24</b>
<b>Health</b>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어...’ 번아웃 증후군	<b>27</b>
<b>Culture</b>	요알못, K사우가 간다 - 간장비빔국수	<b>29</b>
<b>Story +</b>	사우의 글 - 내 인생의 블록	<b>31</b>
	잡학사전 - 작은 벽돌로 이룬 세상 - 레고(Lego)	<b>32</b>
<b>Hstagram</b>	유년시절을 소개합니다	<b>33</b>
<b>Quiz</b>	3월호 퀴즈	<b>34</b>



웹진 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그룹사 풍경 직원들과 함께한 정주영 창업자의 모습  
그림 양승용 | 일러스트레이터

# INSIDE

Feature

People

News

Special

# ‘씩수 있는 기업’의 기준은 ‘드림(Dream)’!

〈미래성장가치〉

글 웹진편집실

씩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기업평가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이 달라졌다. 이전까지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을 평가하는 요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시점만 반영하는 기업가치 평가 방식에 한계가 온 것. 이에 다수의 투자자들은 성장 잠재력을 기업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실제 한 투자증권회사는 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로 ‘주가꿈비율(PDR)’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씩수 |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 같은 김새나 징조를 의미





### 프로선수 선발 1순위는 과거에도 '잠재력'

최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로 미래 성장동력이 각광받고 있지만, 예전부터 프로구단에서는 선수 선발 시 최우선 고려요소가 바로 '잠재력'이었다.

내가 프로야구 스카우트라면, A와 B선수 중 누구를 택할 것인가? 최근 성적을 중시하는 스카우트의 경우 A선수를 택할 것이고, 구위와 체격, 혹사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성장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스카우트라면 B선수를 선택할 것이다.

A선수와 B선수의 고등학교 3년간 기록

구분	투구 이닝	방어율	9이닝당 삼진	신체 조건	기타
A선수	98	0.83	9.0	179cm, 77kg	·2년 연속 무등기 우승 ·황금사자기 MVP
B선수	51.6	2.26	12.54	187cm, 90kg	·2학년 수술로 출전경기 0 ·3학년 봉황대기 부진

2005년 8월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6년 한국프로야구 신인선수 지명회의. 2차 1순위 지명권은 전년도 최하위를 기록한 롯데자이언츠가 갖고 있었다. 롯데는 그 당시 고교 최대어인 A선수를 지목했고, 2순위였던 한화는 B선수를 택했다. 이 당시 롯데자이언츠의 선택은 역대 신인선수 지명 중 최악의 픽으로 15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한화이글스 스카우트는 B선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1순위 지명권이 있었어도 선택에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며, 체격이 좋고 투구폼이 부드러워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A선수의 경우 많은 이닝을 던져 혹사 위험이 있고, 작은 키에 온몸을 다 써서 던지는 선수라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회의적이었다고 말했다. A선수는 입단 첫해인 2006년 마무리 투수로 주목받다 이후 1군과 2군을 들락거리며,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2015년 은퇴했다.

B선수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류현진이다. 류현진은 메이저 리그 토론토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역대 대한민국 투수 기록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 새로운 지표로 등장한 PDR(Price Dream Ratio)

“꿈(기업의 미래가치)을 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도래하며 기존 평가 요소만으로는 기업가치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가치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주가'의 높낮음을 기존 요소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에 상장사의 주가에 대해 고평가 내지는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대표 지표는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이었다. 현재 기업이 내고 있는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PER이 10배라면 한 해 순이익의 10배가 시가총액인데, 보통 12배보다 낮으면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하고, 12배보다 높으면 고평가된 기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PER만으로는 현 주가를 설명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테슬라의 경우 PER이 1,000배에 이른다. 또, 아마존의 PER은 132배까지 상승했으며, 넷플릭스의 PER도 95배에 달했다. 더 이상 기업의 현 매출, 영업이익

으로만 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증권가에서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 PDR(Price Dream Ratio)이다. ‘주가 대비 꿈 비율’로 직역되는 이 용어는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꿈으로 표현하고 있다. PDR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출, 영업이익이 아닌 시장점유율과 해당 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이다.

$$PDR = \text{기업가치(시가총액)} / (\text{TAM} \times \text{시장점유율})$$

예를 들어 시가총액 10조 원 규모의 A업체가 100조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진 산업 내에서 1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면 PDR은 1이다.

PDR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의 기업가치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바이오산업 등 미래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더욱더 효율적이다.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경우 현재 매출, 영업이익은 미진하지만,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 규모에 따라 선구자 역할을 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PDR을 처음 고안한 한국투자증권 리서치팀은 경제주간지인 매경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이 바뀌었으면 기업가치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전망은 밝은데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한 회사가 증시에 상장할 때, 회사 또는 사업부를 매각할 때 PDR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쿠팡, SK이노베이션 등 ‘미래가치’ 높게 평가받아

올해 초 한 유통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시장 및 투자자들 사이에 화제가 된 이유는 그 회사가 기록한 영업이익에 비해 놀라운 상장 규모였다. 이 회사는 기업이 세워진 이후 단 한 차례도 흑자를 기록한 해가 없었지만, 뉴욕 증시에 제출한 희망 공모가는 주당 27~30달러였다. 30달러를 기준으로 상장된다면 이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510억 달러(약 57조 원)에 이른다. 이 기업은 온라인 쇼핑업체인 쿠팡이다.

실제 쿠팡은 주식 공모가를 35달러로 확정짓고,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쿠팡의 기업가치는 상장가를 기준으로 630억 달러(약 71조 8,000억 원)로 평가받았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아시아 기업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로, 2014년 250억 달러(28조 원)를 조달한 중국 알리바바 그룹 이후 최대 규모다.

쿠팡은 지난 10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국의 아마존’이라며 불리며 뉴욕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인 상장을 앞두고 있다. 매년 영업이익 적자로 PER조차 매길 수 없는 기업이 미래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깜짝 놀랄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것이다.

#### 쿠팡의 매출 3개년 추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예상)
매출	4조 3,476억 원	7조 1,407억 원	13조 3,000억 원
영업손실	1조 1,383억 원	7,488억 원	5,257억 원

출처: 상장신고서

쿠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중 가장 거대한 규모인 물류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다. 앞서 언급한 PDR에서 다루고 있는 시장점유율과 전체 시장 규모다.

쿠팡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0개 도시에 100개 이상 물류센터를 확보했으며, 이는 타 업체와 비교해 처리 가능한 물량이 10배 이상 큰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다. 쿠팡이 지난 10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키워 온 ‘로켓배송’ 등의 물류 경쟁력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 쿠팡이 가지고 있는 IT기술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재방문을 높이고 있다. 실제 쿠팡을 이용한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쿠팡을 다시 이용한다고 한다.

또, 쿠팡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률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 시장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아시아 4위, 세계 12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2019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1,280억 달러(약 141조 원) 규모였지만 2024년 2,060억 달러(약 228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쿠팡이 가진 국내 최대 물류 처리 능력과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이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주요 원인이 됐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적자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주가가 오른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은 그간 정유주로 분류돼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왔는데, 미래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폭등했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유가하락의 여파로 2조 3,800억 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

고 있지만, 반대로 주가는 지난해 50% 가까이 올랐다. 배터리 부문의 생산능력을 한국, 헝가리, 중국, 미국 등 전 세계로 확대하며, 2023년까지 총 60GWh 증설계획을 발표한 것이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꿈(미래 성장가치)으로 다가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미래 성장가치 인정받은 '현대글로벌서비스'

우리 그룹 또한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대비하기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다. 기술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AI, 수소,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사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 암모니아 관련 MOU'를 체결하고, KT와 손잡고 '스마트조선소' 구축, '서비스로봇' 및 '무인지게차'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지주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 또한 출

범 이후 가파른 성장세와 미래 성장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2월 23일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KKR과 현대글로벌서비스 지분 38%(152만 주)를 6,460억 원에 매각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보유 현금 1,500억 원을 배당 받음으로써 매각대금을 포함 총 8,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KKR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성장세에 주목해 기업 가치를 약 2조 원으로 산정했다. 출범 이후 5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성장세에 주목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커가는 친환경 시장에서 현대글로벌서비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에 주목했다고 알려졌다.

또, 지난해 6월 KT가 현대로보틱스의 기업가치를 5,000억 원으로 평가하고 500억 원을 투자, 10%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KT는 현대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점유율 1위의 경쟁력과 사업협력을 통한 서비스 로봇 시장 진출 이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현재의 매출, 영업 이익을 외면한 채 미래 성장 가능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허구' 또는 '거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한 기업의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이 미래에도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확실해졌다.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성장 가능성, 미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거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개개인들도 꿈,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업 또한 구성원, 더 나아가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미래 청사진과 실행계획을 제공함으로써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④

현대글로벌서비스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



### 참고자료

1. 매경이코노미, 꿈, 숫자가 되다... PDR로 본 BBIG 주가 (2020.10.21)
2. 매경이코노미, 뉴욕 증시 상장신고서로 본 쿠팡 SWOT 분석 (2021.2.22)
3. 한국경제, PDR로 따져보니 BBIG 주가 저평가(2020.10.14)
4.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www.korea-baseball.com](http://www.korea-baseball.com))

# 주유소의 변신은 무죄! 공간을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다

현대오일뱅크 미래발전TF팀

글 웹진편집실

**Editor's Note** | 사람이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듯, 내연 기관 차량의 에너지원은 기름입니다. 자동차 2,000만 대 시대,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유소는 그저 차량에 기름을 넣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를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피플섹션에서는 주유소에 특별한 가치를 더하는 현대오일뱅크 미래발전TF팀을 만나보았습니다.



“Gas Station’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Value Station’으로의 변화를 꿈꿉니다.”

| 조우태 팀장



안녕하세요?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 미래발전TF팀을 맡고 있는 조우태 팀장입니다. 미래발전TF팀은 2020년 12월 발족해 현대오일뱅크의 유·무형 자산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K네트웍스의 주유소 부문 인수를 통해 국내 정유사 중 최대 직영주유소 네트워크를 확보한 만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사업 모델로 구체화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공간 재해석으로 ‘거점’ 가치 극대화

주유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기름을 넣는 주유기나 대형 솔들이 사방에서 회전하는 자동 세차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차별화를 시도하는 주유소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더 이상 기름만 넣는 공간이 아닙니다. 기존 주유소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주유소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진출입이 용이한 곳에 있어 교통 및 운송 거점으로써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주유소 공간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유소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새 매장을 입점시켜 복합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주유소 부지 한 칸에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것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버거킹,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이 전국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25여 곳에 입점해 있으며, 직영주유소 100여 곳에서는 CU편의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와 매장 간의 시너지는 방문 고객들의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신규 고객의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유소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물류 및 네트워크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류 기업과 협업해 새벽 배송의 거점으로 활용하거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26개 주유소에서 쿠팡과 협력해 물류 공간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내 유휴 공간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합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부가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3조 7,000억 원 규모 세차 시장 진출

세차는 주유소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과거에는 주유소 세차가 고객 모집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를 포함한 고급 차량이 증가하면서 세차 서비스도 고급·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세차 시장의 규모는 연간 3조 7,000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에 저희 미래발전TF팀은 세차를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시장 진출을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현대오일뱅크는 빠르고 깨끗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프리미엄 세차 브랜드 ‘카삭삭’을 출시하며, 세차 사업 진출을 성공적으로 알렸습니다. 현재 10개 주유소에서 프리미엄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 세차, 스팀 세차, 픽업 세차 등 서비스는 파트너사에서 수행하고,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 플랫폼과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고객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용 세차 상품권 도입부터 자체브랜드(PB) 세제, 연료첨가제, 기타 차량



▲올해 2월 런칭한 프리미엄 세차 브랜드 ‘카삭삭’

용품 출시 등 여러 영역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로 패러다임 변화 대비

주유소 시장은 에너지원의 변화와 함께 본격적인 격변기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 전기차 충전소는 새로운 영역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거점’인 주유소에 적합한 전기차 충전소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미래발전TF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완속 충전 시스템이 주택 중심으로 마련된다면, 주유소는 긴급 급속 충전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개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간 거래(B2B) 충전 시장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에너지원이 변하더라도 이를 위한 서비스 수요는 유지될 것이기에 앞서 말한 세차, 차량용품 등에 대한 연계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 운영

미래발전TF팀의 강점은 유연하고 민첩한 움직임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기반으로 빠르게 사업성을 검토, 실행해왔습니다. 특히 올 2월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 내에 신설된 크로스펑셔널팀(Cross

Functional Team, CF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만들어진 CFT는 직급과 직책을 떠나 유연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화 아이디어를 '빅히트'시켜 '롱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히트앤런'팀, '오(5)팀이 머리를 맞대자 일어난 쇼킹하고 크 레이저'한 신사업을 만드는 '오일쇼크'팀, 망치로 기존 사고의 틀을 깨부수는 '블루망치'팀을 포함해 총 5개 팀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참여해 운영되는 만큼 참신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가 고객에게 새로운 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유를 하는 공간인 'Gas Station'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인 'Value Station'으로 변화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그룹사가 가진 강점을 적극 활용해 시너지를 확대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④

## 현대오일뱅크 미래발전TF팀에 물어봤습니다!

### 현대오일뱅크의 시장 입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현대오일뱅크의 전체 주유소 수는 최근 SK네트웍스의 주유소 부문을 인수하며 약 2,600개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향후 거점이 될 직영 주유소는 약 450개소로, 국내 정유사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 주유소 내 입점 매장 등의 복합 임대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 450여 개의 직영 주유소 가운데 복합 매장의 수는 25여 개소입니다. 임대 수익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1.5억 원~1.8억 원 수준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가 확산되며 드라이브스루(Drive-thru) 및 배달 이용이 증가, 이전 대비 임대수익이 5%가량 상승했습니다.

### 주유소 내 라 매장이 입점하면 유류판매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패스트푸드나 카페가 입점한 경우, 현재 유류 매출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추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차의 경우 주유 매출과 세차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이용할 때 그룹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그룹사 직원분들이 현대중공업가족-현대카드M 카드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결제할 경우, 리터당 71원 청구할인과 함께 6 보너스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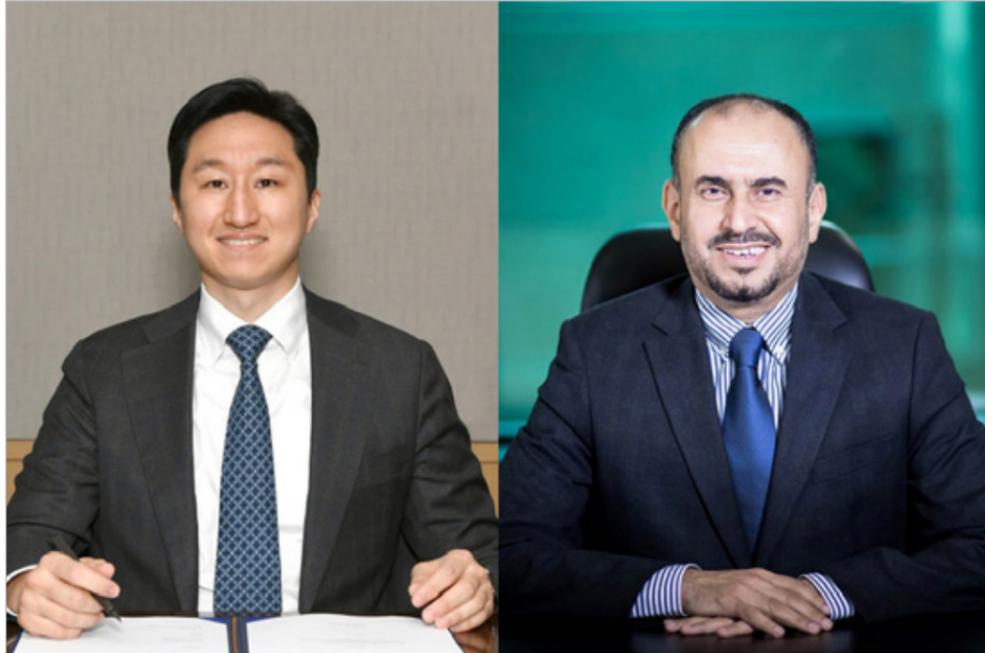
### 카삭삭의 네이밍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팀 내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취합한 뒤, 상표 등록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후보로는 현대삭삭, 클린삭, 세차세차, 슈퍼클(Supakle), 오토스파(AutoSpa) 등이 있었습니다.

### 주유소 지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기에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통신사와 협업해 5G 중계기를 설치하는 수익화 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속해서 검토 중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도 하나의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룹사 주요 소식



## 현대중공업그룹

### 현대중공업그룹-아람코 '수소 드림(Dream)' 함께 꾀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지난 3월 3일 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지주 경영지원실장 정기선 부사장과 사우디 아람코의 테크니컬 서비스 부문 아흐마드 알 사디(Ahmad A. Al-Sa'adi) 수석부사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양사는 이날 협약을 통해 친환경 수소, 암모니아 등을 활용, 협력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아람코로부터 수입한 LPG를 통해 블루수소를 생산, 탈황설비에 활용하거나 차량, 발전용 연료로 판매할 계획이며, 공정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포집해 활용함으로써 탄소제로 공정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람코로부터 블루 암모니아를 제공받아 2024년까지 설립 예정인 LNG보일러의 연료로 일부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도 세계 조선사 중 최초로 LPG-CO<sub>2</sub> 동시 운반선과 암모니아 운반·추진선 개발에 나서며 조선 사업에서 양사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대중공업지주

### 현대글로벌서비스 프리-IPO로 8,0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현대중공업지주가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를 통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2월 23일 이사회에서 현대글로벌서비스 프리 IPO안건을 승인받고 미국 최대 사모펀드인 KKR에 현대글로벌서비스 지분 38%(152만 주)를 6,460억 원에 매각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글로벌서비스 보유 현금 1,500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총 8,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 자금은 로봇, 인공지능(AI), 수소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사업 육성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KKR이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기업가치를 2조 원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중공업지주 관계자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로봇, AI, 수소 등 미래 사업 육성에 집중 제2의 글로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조선해양

## 세계 첫 수소선박 국제표준 개발한다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선급과 손잡고 수소선박에 대한 세계 첫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한국조선해양과 한국선급은 지난 3월 3일 '수소선박 안전설계 규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세계 첫 수소선박 국제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2022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박이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규정에 따라 건조돼야 하는데, 현재는 수소 선박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다. 특히 가스선은 일반 화물이 아닌 액화가스의 저장, 운용, 비상시 절차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 제정이 매우 까다롭다. 한국조선해양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선급과 함께 선박의 가스저장 및 연료공급시스템, 화물 처리시스템 등 수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풍부한 가스선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 현대중공업

## 조선업계 최초로 녹색(ESG)채권 최고 등급 획득

현대중공업이 지난 2월 19일 NICE신용평가사로부터 조선업계 최초로 녹색채권 최고 등급인 그린 1(Green 1) 등급을 받으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바탕으로 3월 5일 당초 예상했던 1,500억 원보다 두 배 많은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사업투자를 목표로 하는 ESG채권 중 하나로, NICE신용평가의 인증등급은 △발행 자금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적합성 △프로젝트 선정의 적정성 △자금관리의 적정성, △외부공시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한다. 현대중공업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을 건조, 유해물질 저장에 앞장서는 등 환경개선 효과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향후 조달자금을 친환경 선박 건조 및 기술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앞선 지난해 5월 조선업계 최초로 산업은행과 총 4,800억 원 규모의 그린론을 체결한 바 있다.

### 현대오일뱅크

## 주유소 고객차량 무료 방역 실시

현대오일뱅크가 2월 9일부터 2개월 간 코로나19 극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객 차량 내부 무료 방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수도권 28개 직영주유소에서 1일 1개소씩 시범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된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3명으로 이뤄진 방역팀이 시트, 핸들, 기어, 에어필터 등 차량 내부를 2분 내 살균 소독해준다. 현대오일뱅크에서 사용하는 소독 제품은 미국 환경청(EPA)에서 승인한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142종류의 바이러스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방역 서비스 시범 운영이 종료되면 고객 만족도 조사를 거쳐 향후 자영주유소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유소별 시행 일자 등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대건설기계

## 신흥시장서 수주 2배 늘어

현대건설기계가 카타르 등 신흥시장에서 대규모 건설기계 수주를 잇달아 따내며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3월 7일 카타르와 콜롬비아에서 각각 굴착기 56대, 굴착기 및 백호로더 40대 등 총 104대의 건설장비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번 계약을 포함해 최근 3개월간 신흥시장에서만 2,698대를 수주하며, 전년 동기 대비 수주량이 128% 늘었다. 앞서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석탄광산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의 수단 금광, 브라질 철광석광산 등에서 장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국과 동남아, 중남미 등 지역에서는 최근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건설기계 판매가 늘어나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향후 현지 맞춤형 장비개발과 고객밀착형 서비스로 판매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산사회복지재단

## 아산장학생에 장학금 44억 원 전달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월 25일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50명, 대학생 583명, 고등학생 80명 등 총 713명에게 아산장학생 장학금 44억 원을 전달했다.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매년 최대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대학교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도 이번 아산 장학생에 포함됐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강권과 교재를 지원하는 이러닝(e-learning) 장학생도 선발했다. 한편,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 5,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78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조선소라는 ‘밥풀 한 알’이 언제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어쨌든 1960년대 전반에 이미 내 마음속에 조선소가 머지않은 미래의 꿈으로 들어앉아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 ‘이 땅에 태어나서’ 中 -

## 현대중공업의 시작과 창업자 정주영

글 웹진편집실

**Editor's Note** |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초석을 다지며 국가 경제의 성장을 함께해 온 현대중공업. 그 시작점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정주영 창업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업자 타계 20주기이자 창립 49주년이 되는 3월, 창업자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 그룹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창립이념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 조선에서 미래를 찾다



현대가 조선사업을 구상했던 60년대 말, 당시 국내 경제는 외화 고갈 상태로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했다. 정주영 창업자는 우리나라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현대의 해외 건설 경험을 살리면서, 동시에 외화도 벌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한 끝에 조선을 선택했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선택한 길은 아니었다. 창업자는 조선업이 위험이 큰 업종이기는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많은 연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종합기계공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룬 시간 안에 중화학공업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창업자의 판단과 실천이 울산의 백사장을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탈바꿈시켰다.

◀ 1973년 3월 20일 울산 현대조선소(현대중공업) 시업식에서 연설하는 정주영 창업자

## 울산, 우리나라 산업수도로 성장하다



▲ 1972년과 현재의 울산 미포만

1972년 3월 현대조선소가 울산 동구에 터를 잡으면서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던 미포만은 세계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울산도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수도로 성장했다. 특히 2011년에는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열기도 했다. 인구도 크게 늘었다. 회사 창립 당시 20만 명에 미치지 못했던 울산 인구는 1982년까지 매년 2~6만 명씩 증가해 1980년에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약 115만 명에 이른다.

‘현대’는 울산을 사회,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전시켰다. 창업자는 1970년대에 2개 대학교와 5개 중·고교를 잇달아 설립했고 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인 해성병원(現 울산대학교병원)을 개원했다. 1990년대에는 한마음회관, 현대예술관 등 다수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기도 했다. 지금도 이 시설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울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애국애족의 마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창업자의 말이다. 현대중공업의 탄생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큰 사건이었다. 당시 미국, 일본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시장규모에 중화학공업은 적절치 못하고 유희설비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정주영 창업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창업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현대중공업은 창립 10년 만인 1983년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을 제치고 조선업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제1의 조선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

◀ 창업자의 애국애족 정신이 남아있는 현대중공업 현장의 모습



창업자 특집 - 제 3화

## 이웃과 민족을 사랑한 인본주의자

글 웹진편집실

**Editor's Note** | 정주영 창업자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현대(現代)'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일구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람' 이라고 말했던 그는 누구보다 앞서 국민들의 삶과 노동, 복지에 대해 고민하고 나눔을 실천한 시대의 어른이었습니다. 매거진 H는 지난 1월부터 총 3부에 걸쳐 아산의 정신과 그가 강조한 삶의 가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달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나라에 희망을 심어주었던 창업자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설립 기자회견

##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재단 ‘아산재단’ 설립

정주영 창업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여러 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신념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아산사회복지재단(이하 아산재단)이다. 창업자는 당시 현대건설 주식의 50%인 5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아산재단을 설립했으며, 이는 당시 국가 사회복지예산 195억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재단인 아산재단은 병고와 가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병원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당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이었고, 진료할 의사가 부족해 ‘유의촌’과 ‘무의촌’으로 지역을 구분하던 시절이었다. 아산재단은 인제, 정읍, 보성, 보령, 강릉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병원을 지어 주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사업과 사회복지 지원 사업, 학술연구 지원 사업 등을 함께 펼쳐나갔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은 많았으나, 어려운 가정이나 근로자의 자녀들에게 먼저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 것은 아산재단이 처음이었다. 정주영 창업자는 아산재단을 통해 부의 사회 환원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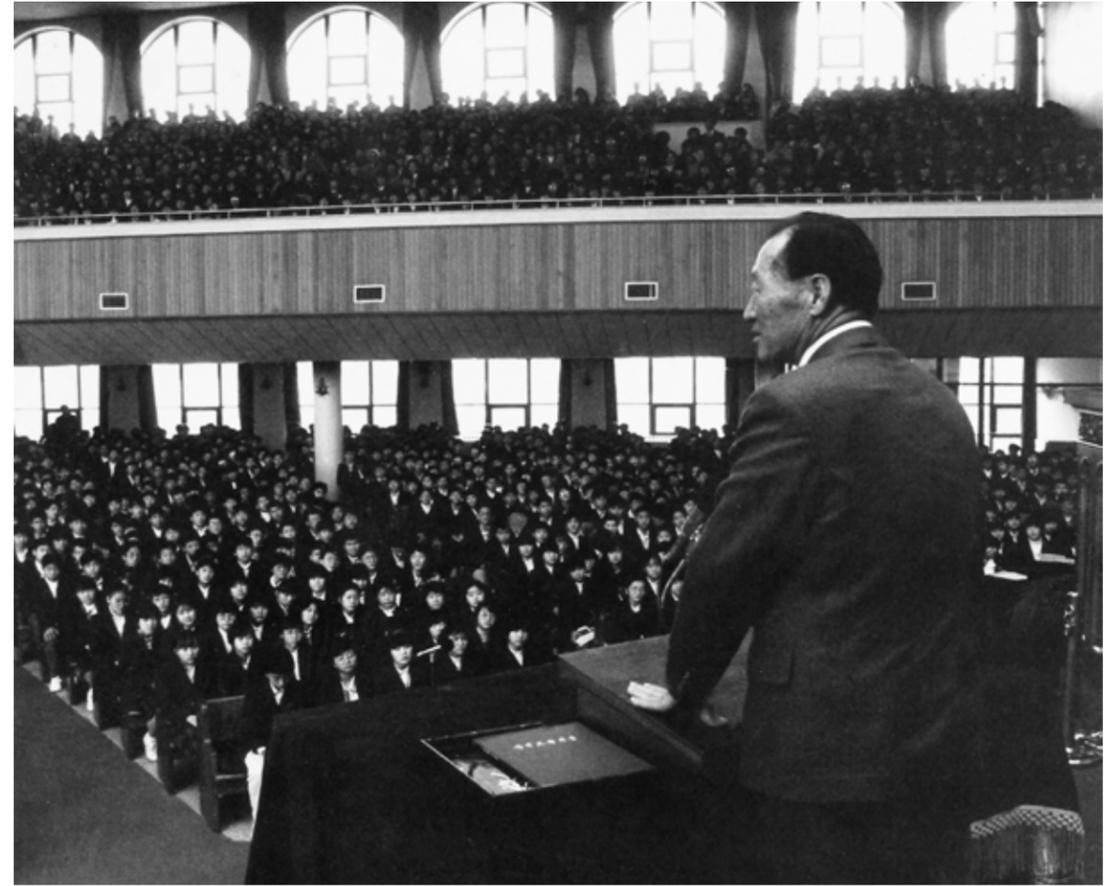
# 所望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의 근본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유능하면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과 사회, 국가는 오늘의 안정과 내일의 번영을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기적도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빚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크게 괴롭히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고와 가난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괴로움은 서로 악순환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병치레하다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기에 온전히 치료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유능한 수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현대’의 재산을 다시 ‘사람’을 위한 일에 뜻있게 쓰는 것은 본인이 오랫동안 품어온 소망(所望)이었습니다.

- 1977년 7월 1일 아산재단 설립 발표 기자회견 中 -

## 인간의 창의와 노력에 대한 무한한 믿음 - 산업인재의 요람 ‘울산대학교·현대학원’ 설립

정주영 창업자의 향학열(向學熱)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서당 교육은 그를 단련시키는 채찍이었으며, 폭넓은 독서와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그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동네 구장덕에 배달되는 신문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어 보곤 했다. 도시로 나와서는 막노동으로 돈을 벌며 ‘법제통신’이나 ‘육법전서’ 같은 책을 사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 치열한 삶이었지만, 그럴수록 배움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우쳤다. 정주영 창업자는 자신과 닮은 젊은이들이 더욱 배우고 익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랐다. 이에 아산은 1969년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직을 맡았다. 같은 해 울산공과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산학협력 시스템을 마련했다. 울산공과대학은 1985년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의 4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보유한 종합대학인 울산대학교로 탈바꿈했다. 울산이 공업도시로 발전하며 인구가 급증하자, 아산은 1976년 학교법인 현대학원을 설립했다. 이어 1978년 현대중학교와 현대공업고등학교, 1981년 현대여자고등학교(현 현대청운고등학교), 1984년 현대여자중학교(현 현대청운중학교)와 현대고등학교 등 총 5개 학교를 개교했다.



▲ 1987년 3월 현대고등학교 입학식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정주영 창업자의 모습

# 理想

젊은 시절 어느 학교 공사장에서 돌을 지고 나르면서 바라본 대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에게는 한없는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때 이루지 못했던 배움에 대한 갈망이 여기에 배움의 주춧돌을 놓게 하였으니 젊은이들이여 이 배움의 터전에서 열심히 학문을 익혀 드높은 이상(理想)으로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대학교 설립 이념 中 -



▲서울올림픽 유치 확정 순간 정주영 창업자의 모습(흰색 동그라미)

## 바덴바덴의 기적

### -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정주영 창업자가 성취한 것은 한 기업의 성공만이 아니었다. 아산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국의 발전을 전 세계의 알린 '88 서울올림픽 유치'의 선봉장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조차 포기하다시피 했던 올림픽 유치를 한 기업인이 해낸 것이다. 올림픽 유치 민간추진위원장을 맡은 아산은 책임감을 가지고 독일로 날아가 올림픽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기업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놀라운 경제발전의 쾌거와 기적을 전하는데 직접 발 벗고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새로 쓴 역사적인 외침이 울려 퍼진다. 아산은 이후 올림픽 관련 시설 공사나 수익사업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올림픽 유치는 오롯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는 소신 때문이었다. **H**

# 責 任

현지 언론은 아주 비정하고 흑독했다. 우리가 마치 절대로 들여놓으면 안 되는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 언론 할 것 없이 '웃긴다'는 반응이었다. 일본의 나고야가 결정적인 것으로 얘기했고, 그 말대로라면 우리는 가망이 전혀 없는 비참한 지경이었다. 중동위원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건설을 많이 했던 '현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현대'의 이미지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를 백분 활용했다. "우리나라의 일개 사업가도 일을 맡으면 신용과 책임(責任)을 지키는데, 국가가 책임지는 올림픽이다", "개발도상국도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내가 그들을 설득한 주요 골자였고, 이 내용은 그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1981년 9월 30일 오후 3시 45분.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더 들을 것도 없었다. 우리 대표단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벌떡 일어서서 서로 얼싸안았다.

- '이 땅에 태어나서' 中 -

창업자 기고문 전재

## 모두 승자가 될 수는 없다



**Editor's Note** | 정주영 창업자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는 옛말처럼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시련을 자양분으로 삼아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의 첫 달, 창업자가 언론사 기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천년을 만들어 갈 젊은이들에게 남긴 당부의 말을 전해봅니다.

지난해 홍콩의 한 경제지가 나를 20세기의 아시아 1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고 전해 들었다. 나로선 영광이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줄곧 축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배가 더 많았던 듯싶다. 다만 나는 그 쓴잔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시련으로 받아들이며, 앞만 보고 걸어 나갔을 뿐이었다. 나의 회고록을 보더라도 금방 드러난다. 그것은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소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내가 도중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비를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 나왔는지를 기록한 내용이다.

일이 어긋나거나 사업이 제대로 안 풀리는 것을 겁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섣부른 시도는 금물이다. 요즘 한창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사실상 성공률은 아무리 높게 봐야 5%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95% 이상이 도중 하차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해 한평생 기업을 일궈온 내가 몇 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나 같은 사람들이 100명 나서서 각자 사업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95명 이상은 실패한다는 사실이다.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자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수의 성공자를 남긴다. 이것은 벤처기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벤처기업이라는 말이 없던 나의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할 때에도 성공률은 이처럼 낮았다. 사실 사업치고 벤처 아

닌 게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성공의 모델 케이스로 보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나만을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더 많은 실패 케이스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95% 이상의 벤처기업이 쓰러진다고 할 경우 그것은 100번의 시도 중 95번 이상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이지, 100명 중 95명이 곧장 인생 실패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한두 번의 시도로 좌절해서는 애초에 기업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봐야 마땅할 것이다.

사업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때 재기불능으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신용이다. 신용을 저버린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다. 또 다른 시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변에 신용을 쌓아둔 사람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또 다른 시도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결국 사업에 나선 사람이 커다란 시련에 부딪혔을 때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운명이 갈린다.

신용의 힘을 일찍 깨닫는 젊은이는 사업가적 자질을 반쯤은 이미 갖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을 속이면서 조그만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업에서 독약이다.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도 차라리 사업이 망하는 게 낫다. 독약이 쌓여 가지고는 사업을 오래 지탱할 수가 없다. 사업이 망할지언정 사람의 신용을 손상당해서는 안 된다.

벤처사업에 나서는 젊은이들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나의 외침을 함께 나눠 갖길 바란다. 남다른 의지로 인생을 걸고 자기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벤처기업가라면 왜 내가 그러한 신념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해 왔는지를 벌써 깨달았을 것이다.

- 머니투데이 발췌 -

※이 기고문은 고령이신 정주영 창업자님이 구술한 것을 토대로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

# STORY

Trend

Health

Culture

Story +

Hstagram

Quiz

# DROP = IN

## 당신은 초대 받았나요? 인사들의 앱, ‘클럽하우스’

글 조아라 | 한경닷컴 기자

전 세계를 강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클럽하우스’의 인기가 국내에도 상륙했다. 불과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클럽하우스는 최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클럽하우스를 통해 게임스탑 공매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에 대해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의 앱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최태원 SK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창업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승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이용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AUDIO

# CHAT

## 목소리만 소통... 이용하려면 초대장 또는 승인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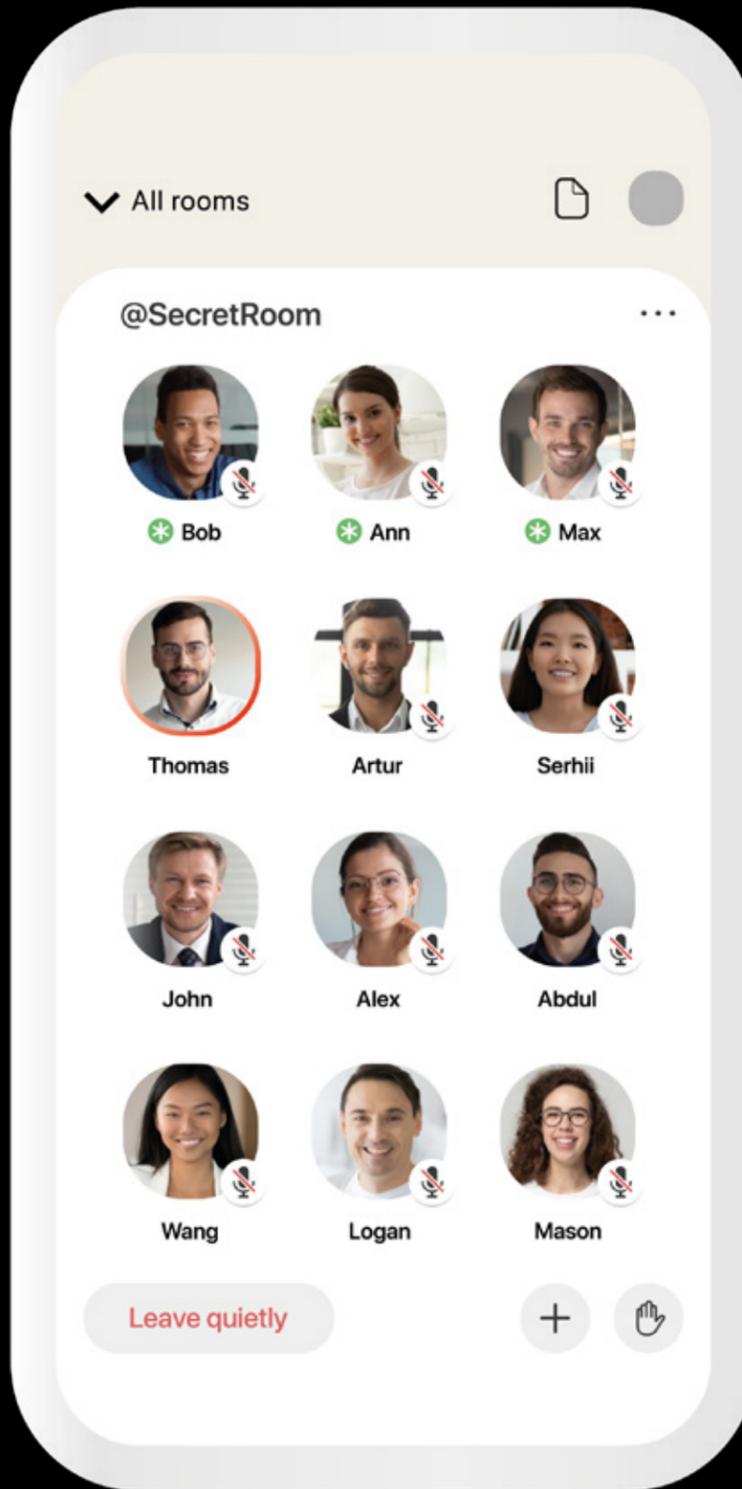
클럽하우스는 2020년 3월 출시된 음성 기반 SNS다. 전화 통화를 하듯 목소리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클럽하우스 인기가 폭발하면서 이 앱을 만든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은 단숨에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뜨겁다. 지난 2월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국내 클럽하우스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약 19만 5,000건을 기록했다.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는 810여만 건에 달한다. 앱애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SNS 앱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SNS 앱 시장 확장이 클럽하우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초기 클럽하우스 사용자층은 정보기술(IT) 산업 종사자, 투자자, 창업자, 미디어 분야 전문가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인까지 사용자층이 확대되는 추세다.

클럽하우스 가입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다운로드한 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와 이름을 쓰면 가입이 완료된다. 가입은 대부분 실명으로 하는 추세다. 연락처를 기반으로 초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명을 쓰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입하더라도 바로 클럽하우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 앱을 이용하려면 기존 가입자의 초대장을 받거나 이미 가입한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다. 초대받지 못한 경우엔 대기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가입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SNS와 가장 차별화된 점이다.

지인으로부터 초대장 또는 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즉각 이용이 가



능하다. 사용 직전 연락처 동기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수락'을 선택하면 휴대폰 연락처 내 친구 목록이 나타난다. 친구 목록은 클럽하우스에 가입한 지인이 많은 순서대로 보여준다. 원하는 친구에게 클럽하우스를 알리고 싶으면 초대장을 보내면 된다. 다만 아이폰 운영체제(iOS)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이폰을 사용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유명인과 실시간쌍방향 소통 '인기비결'

클럽하우스 메인 화면에는 팔로우 가능한 가입자들과 현재 열려있는 대화방이 보인다. 특이한 것은 대화방 검색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자신이 팔로우한 가입자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이 나타난다. 따라서 '핵인싸' 가입자를 팔로우하면 더 다양한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다. 관심 인물을 팔로우하고 알림 설정을 하면, 그 사람이 대화방에서 화자, 청자로 활동할 때 알림도 받아볼 수 있다. 또, 대화방 검색이 안 되는 대신 카테고리별로 원하는 '클럽'을 찾아 가입할 수 있다. 주제는 건강(Wellness), 라이프(Life), 교제(Hanging Out), 정체성(Identity),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예술(Arts), 스포츠(Sports) 등 다양하다.

대화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다. 원하는 대화방에 입장하면 된다. 다만 발언권은 없다. 대화방에 입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회자(방장·모더레이터), 화자(스피커), 청자(리스너)로 그룹이 나뉘게 된다.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면 우측 하단에 손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화방에서 나가고 싶으면 좌측 하단의 '조용히 나가기(leave quietly)'를 누르면 된다.

클럽하우스의 매력은 다양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인이라면 만나기 어려운 유명인과의 쌍방

향 소통이 가능하다. 음성 기반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아 번거롭게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녹음 및 저장이 불가능해 기록도 남지 않는다. 기록이 남지 않는 만큼 보안성이 높은 것도 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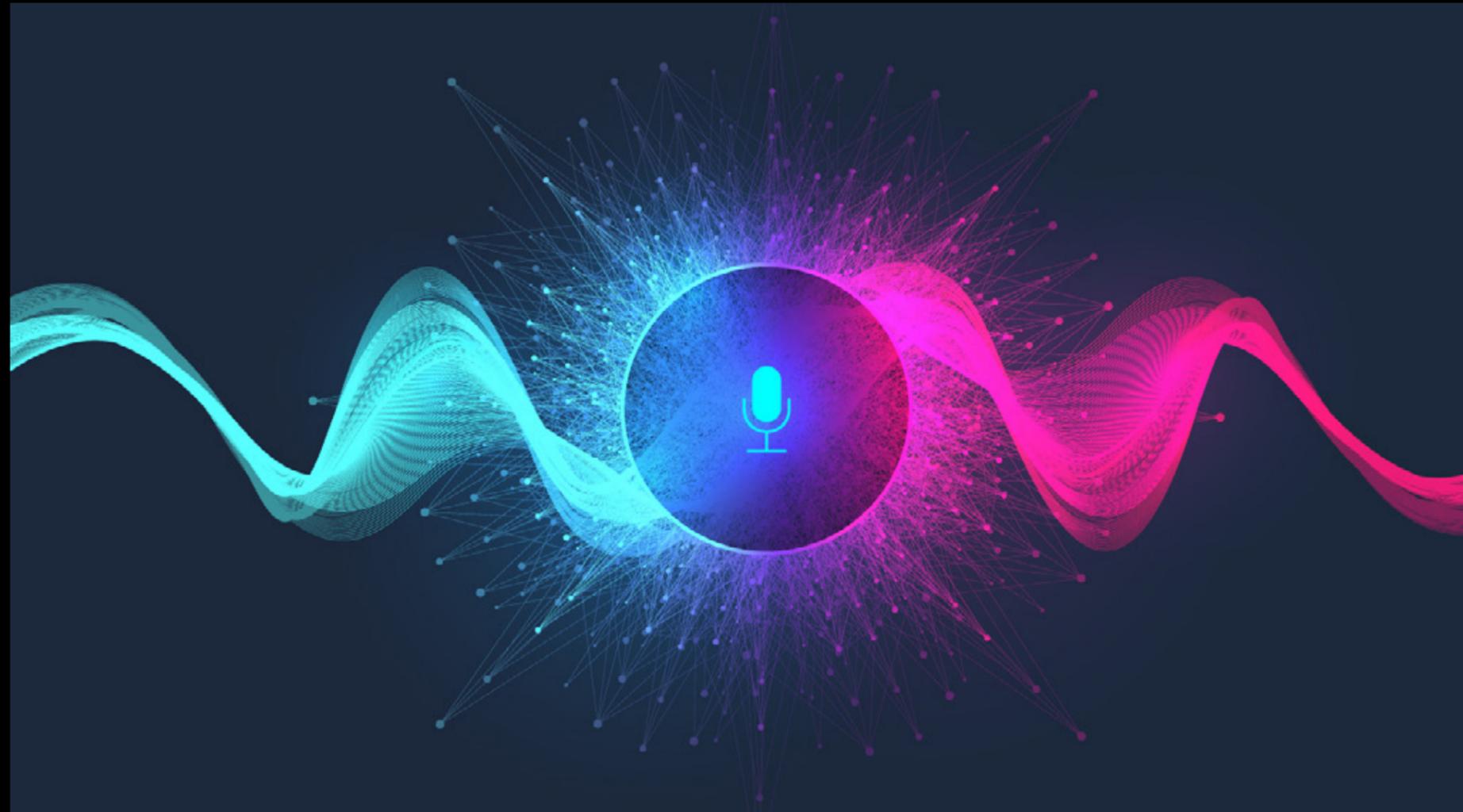
클럽하우스의 인기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시대적 특수성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서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소통의 욕구’를 적절히 분출하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인간 소외 두려움’을 자극하는 셈이다. 초대장이라는 자격을 얻어야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다.

### ‘인싸앱’ vs ‘귀족파티’...엇갈리는 반응

클럽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이용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유명인과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매우 유익하다는 평가와 함께 까다로운 진입 장벽 때문에 ‘현대판 귀족파티’ 같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클럽하우스 앱은 ‘물건’”이라며 “음식, 수다, 여행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인종차별, 여성인권, 주식, 투자, 외국어 배우기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 코미디언 성대모사까지 접할 수 있어 신세계를 찾은 것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유명인에게 직접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은 기존 가입자의 초대나 승인이 있어야만 앱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나친 폐쇄성으로 몇몇 소수의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외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일부 엘리트와 얼리어답터 등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폐쇄형 사교클럽을 구축하는 느낌”이라며 “신분 상승 욕망과 계급사회를 투영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클럽하우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무선 기기 보편화와 사진 및 영상에 지친 이용자들이 대규모로 옮겨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대체하는 차세대 SNS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과 폐쇄적인 앱 성격에 이용자 소외를 불러일으켜 결국 이용자층이 떨어져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단순 유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클럽하우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④



#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어...’ 번아웃 증후군

글 안명희 | 서울아산병원 건강의학과 건진교수

그림 정민영 | 일러스트레이터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완연한 봄 날씨가 무색하게 이 대리의 몸과 마음에는 아직 찬바람만 가득하다. 잠을 아무리 자도 몸은 천근만근이고, 피로감에 짜증과 스트레스만 늘었다. 주말이면 늘 친구들을 만나 여가활동을 즐겼었지만, 요즘엔 이마저도 귀찮다. 퇴근 후에는 더 심각하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까닭 모를 무기력함이 이 대리를 집어삼키고 있다.

##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져

주위를 둘러보면 이 대리와의 같은 증상의 직장인들이 제법 많다. 이들 대부분은 많은 양의 업무를 해내면서, 동시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며, 쉬는 날에도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나 다가올 일들을 떠올리며 불안해한다. 머릿속에서 일이 떠나지 않지만,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진다.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직장인 바이러스, 바로 번아웃(burn-out) 증후군이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번아웃이 더 쉽게 찾아온다. 이들은 평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높은 성취를 내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한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자신을 채찍질하는데,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될 때면 죄책감에 빠지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더 몰아세운다. 모든 일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해 온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찾아올 수밖에 없다. 번아웃이 심해지면 무기력증을 넘어 건망증과 불면증, 불안증을 동반할 수 있고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정서 관리가 필요하다.

## 마음 수행으로 ‘번아웃’ 이겨내기

번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은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다. 마인드풀니스는 불교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주의를 집중하고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을 뜻한다. 명상, 사색, 마음 수행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인드풀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이 떠오를 때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 감정 또한 사실이 아닌 단순한 ‘감정’으로만 인식해야 한다.

마인드풀니스 훈련의 시작은 하루 중 오롯이 휴식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칠 때까지 달리는 것보다 적당한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최소 30분 동안 멍을 때려도 좋고, 눈을 감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좋다. 과부하가 걸린 뇌를 잠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과학 분야에서 마인드풀니스 기반 치료는 부교감신경계 활동을 촉진, 세로토닌 분비를 통한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 등 그 치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번아웃 해결책이다. 이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내적 경험의 긍정적 인식을 끌어내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 번아웃 증후군, 무엇이 궁금한가요?



#1

번아웃 증후군, 스스로 진단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자가진단 테스트는 없다. 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5년에 만든 간이테스트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번아웃과 관련한 증상들이 우려될 수준으로 나타나거나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을 권장한다.

#2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이 무기력감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인 각성 효과를 유발하므로 아침의 무기력감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카페인 섭취량이 증가하면 오히려 예민, 불면,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커피 대신 간단한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며 무기력감을 이겨내 보자.

#3

번아웃을 겪고 있는 동료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언해 주기보다는, 상대방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감정에 잘 공감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



요알못

# K사우가 간다

## 간장비빔국수 편

글·사진 웹진편집실

레시피 제공 장효주 | 한국조선해양 컴플라이언스팀

**Editor's Note** | 우리 그룹의 모든 '요알못(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해 K사우가 나섰습니다. 올해 컬처 섹션은 임직원들이 보내준 레시피를 K사우가 직접 요리해보고 평가하는 코너로 채워집니다. 이 달에는 직접 만든 양념장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초간단' 간장비빔국수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재료(2인분 기준)** | 소면 2인분(약 240g), 애호박 1개, 당근 1개, 쪽파 3~4대, 설탕 2스푼, 간장 3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식초 작은 1스푼, 참기름 2~3스푼, 볶은 깨 약간



# 간장비빔국수



1-1 애호박, 당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채 썬다.



1-2



1-3 쪽파도 쫄쫄 썰어 준비한다.



2 준비한 설탕, 간장, 다진 마늘, 식초, 참기름, 볶은 깨에 물 1스푼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3 끓는 물에 소면을 넣고 2분 정도 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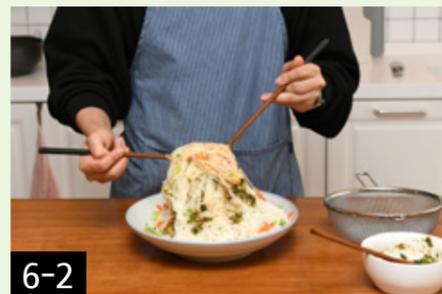
4 면이 거의 익을 때쯤 썰어놓은 채소를 넣고 50초간 더 익힌다.



5 삶은 소면을 찬물에 여러 번 헹구어 전분을 제거한 뒤,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6-1 물기가 빠진 소면에 양념장을 넣고 잘 비벼준다.



6-2 간장비빔국수 완성!

# K사우의 한줄평



쉽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쉬운 맛 채 썰기는 아직도 어렵다

## 요알못을 위한 Tip

- ✔ 소면을 찬물에 박박 씻어야 불지 않아요.
- ✔ 양념장을 넉넉히 만들어 뒤야 입맛에 따라 부족하지 않게 간을 할 수 있어요.
- ✔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해져요.
- ✔ 상추나 양파를 추가하면 더 상큼하게 즐길 수 있어요.
- ✔ 소금 1꼬집, 김치 2줄, 고춧가루 2스푼을 추가하면 김치비빔국수로 변신!

※ 유튜브 <현대중공업TV> 채널에서 K사우가 요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사우의 글

# 내 인생의 블록

글 서동호 | 현대미포조선 인사팀

나는 어린 시절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상상의 놀이를 하는 걸 좋아했다. 장난감 박스는 내 유년시절 보물 1호였다. 박스에는 부모님께서 사주신, 사촌 형에게 물려받은 블록들이 들어있었는데 나의 상상력만큼이나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어느덧 장난감보다 컴퓨터 게임이나 만화책, 드라마와 영화가 더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면서 블록은 점차 추억이라는 상자 속으로 자취를 감춰 버렸다.

그런데 최근 블록이 다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보물이 됐다. 바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난 첫째가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딸아이를 위한 장난감이란 명분으로 유아용 블록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한때 장난감 박스를 가득 채웠던 내 소유욕이 더해져 블록의 수는 늘어만 갔다. 그만큼 아이와 함께 노는 시간도 쌓여서, 블록은 어느덧 여섯 살 아이와 동심 가득 아빠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놀이 도구가 되었다.

아이의 블록들도 언젠가는 추억 속 상자로 들어가겠지만, 아이의 상상과 아빠와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은 반드시 좋은 기억으로 함께 저장되기를 바란다.

**Editor's Note** | Story +는 사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를 모아 함께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사우들 인생의 소소하지만 특별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친  는 무엇인가요? 사람, 사건, 사물,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목과 사연(500자 내외)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우에게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mailto: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 #놀이하는 사람, 호모루덴스

네덜란드의 문화인류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놀이’가 모든 문화의 근간에 있다고 보고 인류를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사람)’로 정의한 바 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즐기고 놀면서 시청각, 인지력, 조절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배우게 되며, 지능, 운동능력,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적절한 장난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레고(Lego)’는 여러 개의 벽돌 형태 조각인 ‘블록’을 조립하여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 과학학습과 연계해 지능 발달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훌륭한 놀이도구로 불린다.

## #불량률 ‘제로’에 수렴하는 레고

레고는 여러 개의 블록을 결합해 쌓아 올리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정교함이 매우 중요하다. 레고사는 ‘오직 최고만이 최고다’라는 경영이념답게 100만 개 중 겨우 8개 정도의 불량품이 나올 정도로 정교한 제품 공정을 자랑한다. 각각의 레고 부품은 정밀하게 측정하여 제작되는데, 두 개의 블록을 맞물렸을 때 단단히 자리에 끼워지는지, 또 쉽게 분해되는지가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의 핵심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마이크로미터( $\mu\text{m}$ ) 오차 범위 내의 블록이 만들어진다. 레고사는 평균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2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다.

## #레고의 시작은 목재 장난감

레고는 덴마크어 ‘레고 고트(leg godt)’의 줄임말로 ‘잘 논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레고가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레고 그룹의 창업자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Ole Kirk Christiansen)은 1932년 덴마크의 빌룬트라는 지역에서 가정용품을 제작하는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세계 대공황으로 목공소가 폐업 위기에 몰렸었지만, 그가 자투리 목재로 만든 장난감이 잘 팔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크리스티안센은 2년 뒤 회사를 ‘레고’라 이름 짓고 본격적으로 장난감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장난감은 곧 유럽 전역에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다.

## #1초에 1,140개씩 1년에 36억 개 생산

레고는 그 인기만큼 엄청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산된 레고 블록의 수는 약 4,000억 개에 달하며, 지금도 1초에 1,140개씩 매년 36억 개가 만들어지고 있다. 레고사가 자사의 자동차 블록 장난감을 위해 제작하는 작은 고무 타이어는 매년 4억여 개가 생산돼, 전 세계 타이어 생산 개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레고 완제품 박스는 전 세계에서 1초에 7개, 1분에 420개, 1시간에 2만 5,000개가 팔린다. 사람들이 1년 동안 레고 블록 조립에 투자하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무려 50억 시간에 달한다고 한다.

## #나무에서 플라스틱으로

레고가 바퀴 달린 오리 인형 풀 토이(Pull Toy)와 자동차, 요요 등 목재 장난감으로 명성을 얻을 즈음 1942년 갑작스러운 화재로 공장이 불타버린다. 그러나 크리스티안센은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나무 장난감 생산을 대폭 줄이고 당시 신기술인 플라스틱 장난감 제조를 목표로 공장을 재정비한다. 단순하고 자유자재로 조립할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고 싶어 했던 그에게 플라스틱이란 신소재는 새로운 영감을 줬다. 그는 영국의 한 회사에서 특허를 수입, 접착제를 쓰지 않고도 단단하게 결합이 가능한 ‘자동 잠금 브릭(Interlocking Bricks)’ 장난감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

## #영화, 게임까지 거침없는 확장

레고는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레고 역사상 최초의 라이선스 제품인 스타워즈 시리즈는 기존 어린이 고객뿐만 아니라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성인들까지 레고의 세계로 불러들였다. 레고사는 이후에도 해리포터, 스파이더맨, 배트맨 등 수많은 인기 작품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발매해오고 있다. 레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있다. 레고사는 TV, DVD, 극장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영화사업에 진출해 극장 개봉작 4편으로 약 11억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 그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에 노미네이트되는 등 작품성도 인정받고 있다. ①



#Hstagram

# 유년시절을 소개합니다

Editor's Note | Hstagram은 매달 주제를 정해 사우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3월 호에는 사우들의 추억이 담긴 유년시절 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4월호의 주제는 '봄'입니다.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키워드 3개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사우에게 갤럭시 버즈 라이브(베스트 컷 1명)와 문화상품권(6명)을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mailto: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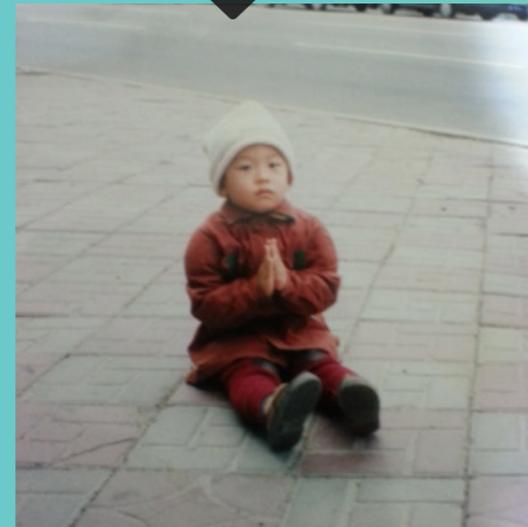


이의진 대리 | 한국조선해양 세무주식팀



#꼬마모델 #왕년에좀잘나갔죠  
#자가용도있었죠 #부릉부릉

정영훈 대리 | 현대중공업 소재생산부



#점잖게떼쓰기 #길바닥에서  
#완벽한합장 #동자승포스

이민영 대리 | 현대건설기계 마케팅부



#이제나도초딩 #한껏설렘  
#비가와도행복한 #입학식

이경보 대리 | 현대오일뱅크 홍보팀



#원진몰라도부드함 #자신만만  
#완성형이목구비

이은지 사원 | 현대일렉트릭 선박기기영업부



#육아난이도최상 #하품도장군감  
#귀여움으로승부한다

정인상 사원 | 현대일렉트릭 총무팀



#어릴적생일파티에서  
#나의리즈시절 #추억의사진

이번 호에 실린 글을 읽고 아래 퀴즈의 정답을 찾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소속 회사, 부서,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  
(1명)



문화상품권  
(10명)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기한: 2021년 3월 31일

1 한국조선해양과 한국선급은 지난 3월 3일 '( )선박 안전설계 규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 )선박에 대한 세계 첫 국제표준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안에 들어갈 단어는?

- ① 친환경    ② 수소    ③ LNG

2 정주영 창업자가 설립한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가난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 ① 장학금 사업    ② 학술연구 지원    ③ 병원 설립

3 이번 3월호 매거진 H #Hstagram의 주제는?

- ① 눈    ② 봄    ③ 유년시절

2월호 퀴즈 정답    1. ② 사회(Social)    2. ② 카삭삭    3. ① 현대자동차공업사

**당첨자**

**갤럭시 버즈 라이브 (1명)**

안창현 | 현대글로벌서비스 물류팀

**문화상품권 (10명)**

장재국 | 현대건설기계 설계부

권수연 | 현대중공업 기술설계과

박초록 | 현대중공업 특수선구매팀

김지훈 | 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개발부

김휘진 | 현대중공업 선체설계부

류재길 | 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개발부

이중규 | 현대중공업 기장설계부

강한이 | 현대중공업 선실설계부

박장구 | 현대삼호중공업 선행도장부

박수현 | 현대중공업 특수선수중함생산부

현대오일뱅크

# 프리미엄멤버십

기본혜택

## “세차 8회”



추가혜택1

**최대 30원  
할인**

보너스카드앱(BLUE)  
예약주유시 리터당

추가혜택2

**3,000원  
쿠폰**

현대오일뱅크  
모바일 주유쿠폰

추가혜택3

**3,000원  
할인**

엑스티어알파  
[연료첨가제]



타이어 최대 **40% 할인**  
휠얼라인먼트 **1만원 할인**  
타이어 위치교환 **1만원 할인**  
제주 렌터카 **최대 15% 할인** 및 주요 관광지/카페 할인

**NEXEN NEXEN TIRE**  
제휴혜택

고객센터 1588-5189

멤버십 가입 및 혜택 관련 내용은 보너스카드앱(BLUE) 확인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 가입비는 3만원이며, 멤버십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쿠폰별 유효기간 상이)
- \* 프리미엄멤버십 세차쿠폰은 전국 직영주유소 및 가맹 자영주유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 세차쿠폰은 가입 즉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쿠폰은 가입 익일 제공됩니다.
- \* 추가/제휴혜택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축소될 수 있습니다.



APP STORE (iOS)



GOOGLE PLAY (Android)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거진 H는 사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룹 웹진입니다. 읽고 난 소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점, 소개하고 싶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주세요. 보내실 때 소속과 성함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magazine@hhi.co.kr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www.hyundai-holdings.co.kr

Copyright©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All Rights Reserved